

필리핀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이름	노은*	학번	
파견국가	필리핀	파견도시	마닐라
파견대학	라살아라네타대학	기간	2016. 12. 24(토) ~ 2017. 1. 21(토)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위치는 마닐라 수도보다 한 30-40분?정도 떨어져있는 곳이었고, 학교 주변 시설은 안전하다고 느꼈고, 분위기는 좋았다
수업	일대일 수업 3시간, 레벨테스트 후 다른 학교랑 소그룹 대그룹 수업이 이루어진다. 소그룹은 5명 대그룹은 대개 12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루에 수업은 8시간으로 일대일 수업 3시간, 소그룹수업 2시간, 대그룹수업 3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업준비는 과제내주는 것과 책만 잘 가져가면 된다. 일주일에 한 번 - 두 번 에세이를 제출한다.
Activity	-민도르섬 민도르 섬에가서 이박 삼일로 거기서 숙박하고 물놀이 등 하는 것이었는데 진짜로 추천한다! 우리나라와 다른 파도의 세기를 느낄 수 있고 (차원이 다름) 이번에는 학교에서 민도르섬 액티비티 비용(한화로 약 8만원)을 지원해줘서 무료로 다녀온 점이 좋았다. 근데 돈을 내가 지불하더라도 민도르 섬은 갈 만한 곳이다. 꼭 추천한다. 래쉬가드 정도는 챙겨가는 것이 좋고 가서 플라잉 피쉬, 제트스키와 같은 레저 스포츠를 한국보다 저렴한 가격에 즐길 수 있으니 여윌돈도 챙겨가는 것이 좋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12월 1월은 정말로 별로 많이 덥진 않았다. 필리핀 날씨를 너무 걱정한 탓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한여름 날씨보다는 훨훨 안덥다고 느꼈다. 12월 처음 도착했을 때는 밤에 돌아다니면 덥긴 했는데 1월에는 정말로 밤에 긴바지를 입고다녀도 덥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다. 좋은 날씨였다. 완전 한 여름 생각하고 옷을 챙겨가기 보단 초여름-여름으로 생각하고 옷을 챙겨 가면 괜찮을 것 같다. 나는 한 여름에 긴바지를 답답해서 절! 대! 안 입는 나로서는 옷 규정이 너무 엄격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수업 때는 추울 정도로 에어컨을 틀고 습하지 않아서 엄청 답답하고 싫은 생각은 없었다. 치마는 무릎 선 통치마, 롱원피스 가져가는 것을 추천하고, 주말에는 옷 규정이 없으니 맘대로 입을 옷, 이쁜 옷 적당히 챙겨가는 거 추천한다.
안전	혼자는 안다녀봤지만, 같이 다니면 전혀 위험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야시장 쪽이 그나마 위험하다고 할 수는 있는데 같이 다니면 위험할 것도 없다. 하지만 항상 경각심은 가지고 다닐 것!
숙소	우리학교는 신기숙사여서 좋았다. 구 기숙사는 벌레도 많이 나왔다는데 벌레도 안 나오고 침대도 개인 침대인데 이층침대를 하나씩 놓고 혼자 쓰는 구조라 아늑한 기분까지 들었고, 콘센트 굳이 110볼트 연결 잭을 안가지고 가도 된다 220볼트 호환용이라 그냥 꽂아도 들어간다. (민도르 섬 갈땐 챙기긴 해야 함) 청소도 매일 해주시고, 화장실은 좁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하거나 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통금시간이 10시라는 점! 놀다가 중간에 끊고 들어와야 하는 점이 아쉬웠다.
식사	개인적으로 우리학교 학식보다 맛있었다. 정말로 호텔식당이 아니었다면 한국음식 생각이 많이 났을 것 같은데, 한식이 잘 나와서 한국음식 생각은 많이 나지 않았다. 삼겹살이나 냉면 .. 이런 종류에 학식으로 나오지 않는 것들만 생각이 날뿐 이었다.
교통	통학은 걸어서하면 되고 (학교옆에 바로 기숙사가 있음), 시내로 나가거나 놀러 갈 때는 택시를 이용한다. 택시비가 워낙 싸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고, 가끔 트라이시클이나 지프니를 이용했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유학허가증(SSP), 여행자보험,기숙사보증금	699,000	출국 전 사전 납부
여가생활 비용	500달러	
합계	500달러	

5. 출국 전 준비사항

돈은 달러로 환전하는 게 좋고, 처음에 350정도 환전해서 돈이 부족할 때, 백화점이나 주변에 마트가서 환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필리핀 생활을 하면서 값진 경험이 정말 많았다. 지금까지 여행으로만 여러 나라를 많이 다녀왔지만, 이번에 다녀온 필리핀이 진정한 자유롭게 다니는 자유여행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말에는 많은 경험을 얻게 되었다. 한국에서는 받지 않는 발음 수업도 받게 되었는데, 어렸을 때만 발음이나 읽기공부를 하다가 커서는 토익이나 문법에만 취중이 되어, 읽기 수업을 받고 싶었는데 수업시간에 발음수업이 있어서 너무 좋았다. 내 발음이 잘못되고 틀리다는 생각을 전혀 안하고 살다가 1대1시간에 발음교정도 받고 사소한 발음까지 지적받으며 고쳐나가는 것이 제일 나에게 좋은 수업이 되었다. 그리고 선생님들과 자유롭게 영어로 말을 해가며, 스스로 부족한 단어도 알아가고, 일상 영어도 느끼는 기분이었다. 한달동안 정말 알차게 하루하루를 살아서 후회 없는 필리핀 생활이 되었다. 만약 한국에서 영어 학원 한 달 다니는 것보다 영어실력이 덜 는다 그래도 필리핀 어학 연수는 와서 많은 걸 겪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같이 온 타 학교와 비교해보면 가격 면에서도 저렴한 축에 속하기 때문에 그만큼 오면 혜택을 많이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기 전에 비하면 영어에 대한 자신감, 관심도, 발음, 쓰기 능력 등 많은 것이 향상 되었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졸업식



대그룹 마지막 수업 날



민도르 섬



마닐라투어 (대그룹+ 선생님과 함께)



하늘정원



마닐라주